



07-22 (통권 149호)

2007.6.1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6월 한은 BSI 개선 미흡
- 세계은행, 신흥시장 경제 과열 경고

경영 노트

- 기업들 '새 우물 찾기' 총력전

사회 트렌드

- 한국의 평화 수준, 'not bad'
- 직장인 사춘기

저널 브리프

- 한국 경제 회복 3대 걸림돌 - 미국 경제, 유가, 환율

洗心錄

- '탄스타플'(TANSTAAFL)과 '위키노믹스'(WIKINOMICS)

□ 6월 한은 BSI 개선 미흡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5월 업황 BSI가 4월의 85에서 87로 개선되었으나, 6월 업황 전망 BSI는 91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
 - 특히 6월 업황 BSI의 경우 중소기업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기업이 5월 97에서 6월에 94로 3p 급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동 조사에서 5월중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 애로 사항으로는 응답 기업의 19.0%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내수 부진(18.1%), 환율 하락(15.7%) 등이 상위를 차지함
 -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5월 업황 BSI가 88로 전월과 동일하였으나, 6월 업황 전망 BSI는 93으로 5월보다 1p가 하락함
- 최근 일부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투자 회복세가 미약한 수준에 그칠 우려가 존재함

□ 세계은행, 신흥시장 경제 과열 경고

- 세계은행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이 동아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명함
 - 신흥시장으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은 이들 국가의 자산 가격을 급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품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함
 - 동 보고서는 특히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외화 차입을 통한 급속한 외채 증가와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함
- 따라서 신흥시장 개도국들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과잉 유동성과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기업들 '새 우물 찾기' 총력전

- 최근 국내 기업들이 주력 사업을 능가할 대체 사업 아이템 발굴과 수익 모델 다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한 가지 사업으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력 사업의 성장 정체'를 이겨 낼 새 수익원의 발굴은 필수
 - 특히, 주력 사업이 성장 한계에 직면했거나, 본래의 수익 모델이 단조로운 기업들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 찾기가 활발
- 일부 기업들은 기존 사업과는 전혀 다른 신사업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의 사업 영역과 연관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음
 - 신사업 발굴형의 대표 격인 포스코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연료전지 사업에 진출하였고, 주력 사업을 철강에서 차세대 에너지로 재편할 계획
 -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하여 우수 인력을 중심으로 '별동대'와 같은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도 점차 늘고 있음

<국내 기업들의 신성장 동력>

분류	기업	기존 주력사업	신 성장동력
신사업 발굴형	포스코	철강	발전용 연료전지사업
	현대중공업	조선	태양광에너지 발전사업
	대우자동차판매	건설·자동차판매	의약 및 정보기술 사업(검토중)
	LG전자	가전·휴대폰·TV	태양전지 사업(검토중)
	대한전선	광케이블·리조트	신약개발 사업
연관사업 진출형	삼성전자	반도체·휴대폰·LCD	U-헬스·BIT(BT+IT)사업
	삼성전기	휴대폰기판·카메라모듈	LED 조명사업
	SK(주)	정유	대체에너지, 자동차용 연료전지
	동부하이텍	파운드리·농약	건강기능식품·반도체 재료업
	삼성물산	무역·건설	물류보안 솔루션
	LG상사	무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업

- 기업들이 현재의 수익성을 유지·발전시키며, 미래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앞선 노력과 투자가 필수**
 - 한편,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서는 바이오 등 환경 관련 사업과 연료전지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평화 수준 'not bad'

■ 한국의 평화지수는 121개 국 중 32위임

-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글로벌 평화지수'(GPI)에 따르면 121개 국 중 한국은 32위를 차지했으며, 노르웨이가 1위, 이라크가 최하위를 기록함
- 2위부터 5위까지는 뉴질랜드,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이 차지했으며,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가 그 뒤를 따름

■ 취약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과 평화의 보장과 유지의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할 사항임

- 평화지수는 폭력, 조직범죄, 군사비용, 민주화 등의 24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며, 평화와 국민의 안전 수준을 측정하는 종합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문화와 패션의 국가라는 이탈리아(33위)와 프랑스(34위), 그리고 부의 상징인 미국(96위) 역시 국민의 안전과 평화에서는 우리 나라보다 못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직장인 사춘기

■ 직장인 98%가 '직장인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음

- 직장인 사춘기란 불투명한 비전과 업무 적성, 연봉 등 처우 문제 등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심리적 불안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뜻함
- 직장인 사춘기의 주요 증상은 '의욕 저하·무기력감'(70.8%), '출근 기피'(58.3%), '모든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경 과민'(47.3%), '이직·창업 고려'(44.3%), '삶에 대한 회의'(41.3%) 등임

■ 직장인 사춘기의 주요 원인은 '회사에 대한 불만족'인 반면, 극복을 위해선 '개인적 해결' 방법을 주로 택하고 있어 조직적인 지원이 부족한 현실임

- 직장인 사춘기의 주요 원인은 '회사의 불투명한 비전'(60.6%), '낮은 연봉 및 미흡한 복리후생'(60.2%), '과도한 업무량'(40.5%) 등 회사 자체의 문제가 대부분임
- 반면 이에 대한 해소는 '자기 계발'(29.9%), '운동 등 취미 활동'과 '사직 후 재충전'(각각 18.6%) 등이며, '그냥 참는다'도 12.5%나 되고 있어 대부분 조직적 지원 없이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경제 회복 3대 걸림돌 - 미국 경제, 유가, 환율*

- (개요)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 재상승, 환율 하락이라는 세 가지 불안 요인이 상존
 - 미국 경기 둔화 : 1/4분기 성장률은 1.3%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경기 침체 가능성이 대두
 - 국제 유가 재상승 : 최근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에도 기존 유전 생산량 둔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 등으로 인해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원화 강세 지속 : 원/엔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한편, 원/달러 환율 또한 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만약 이들 3대 걸림돌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의 재침체가 우려됨
 - 수출 감소 : 미국 경기 둔화로 인한 미국의 수입 감소는 한국의 對美 수출 축소를 야기할 것임
 - 또한 중국, 아시아 지역의 對美 수출 감소는 한국의 부품, 소재 수출 위축이라는 우회 수출 감소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경제 성장 저해 : 유가 상승에 의한 수입액 증가는 경상수지 악화, 실질 구매력 하락, 소비 감소 등을 유발, 내수 부진에 의한 경기 둔화를 가져올 수 있음
 - 기업 수익성 악화 : 수년간 지속된 엔저 현상은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수출액 급락(전년 동기 대비 1.3%p 하락)을 초래하였음

- (시사점) 미국 경기, 국제 유가, 환율 등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외환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구조 확립 등의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

* 이 글은 『매경ECONOMY』(2007.5.30)에 실린 글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탄스타플’(TANSTAAFL)과 ‘위키노믹스’(WIKINOMICS)

‘탄스타플’(TANSTAAFL)이란 말은 SF작가인 로버트 A. 하인라인이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1966)에서 처음 썼는데, “공짜점심은 없다”(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의 첫자를 딴 조어이다. 이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먼 교수가 인용하게 되면서 ‘공짜점심’(free lunch)이라는 말이 경제 활동을 설명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다. 어떤 일이든지 공짜로 이뤄지는 일은 없지만 특히 경제 현상에 있어서는 대가 없이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기업은 역사적으로 공짜점심을 주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인터넷이 가져온 ‘개방, 참여’라는 사회 트렌드는 기업이 ‘공짜점심’을 먹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기업과는 무관하게 사용자들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여 활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나아가 제품을 변경하기도 하여 오히려 기업을 판촉해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할리데이비슨 회사는 고객들이 스스로 조직한 100만 명의 HOG(Harley Owner Group) 활동으로 별다른 이벤트를 하지 않고 최근 5년 간 영업이익률 20%를 넘는 실적을 보였다.

고객 파워가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가리켜준 대표적인 사례가 위키피디아(wikipedia)이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는 백과사전이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잡지인 네이처가 위키피디아를 불과 5년 만에 238년 전통의 브리태니커와 질적 차이가 없다고 평가를 내렸다. 이 ‘위키피디아’(wikipedia)와 ‘이코노믹스’(economics)를 합성하여 위키노믹스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사용자들 간의 대규모 참여와 협력을 통해 혁신을 일으켜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방식이다.

기업에게 위키노믹스는 혁신이라는 ‘공짜점심’을 먹을 수 있는 방식을 가리켜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자신이 가진 지식을 외부에게 개방, 공유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해야 하는 위키노믹스의 기본 전제를 충족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혁신의 주도권(authorship)이 소수에서 다수로 옮겨가고 있다”

- 미국 타임誌 (2006년 3월 20일)